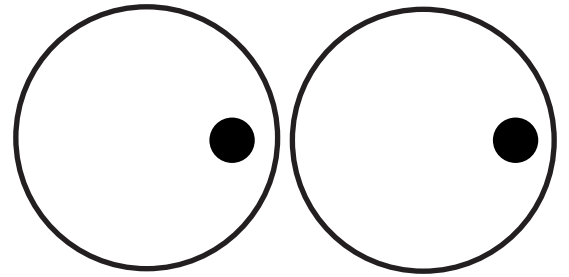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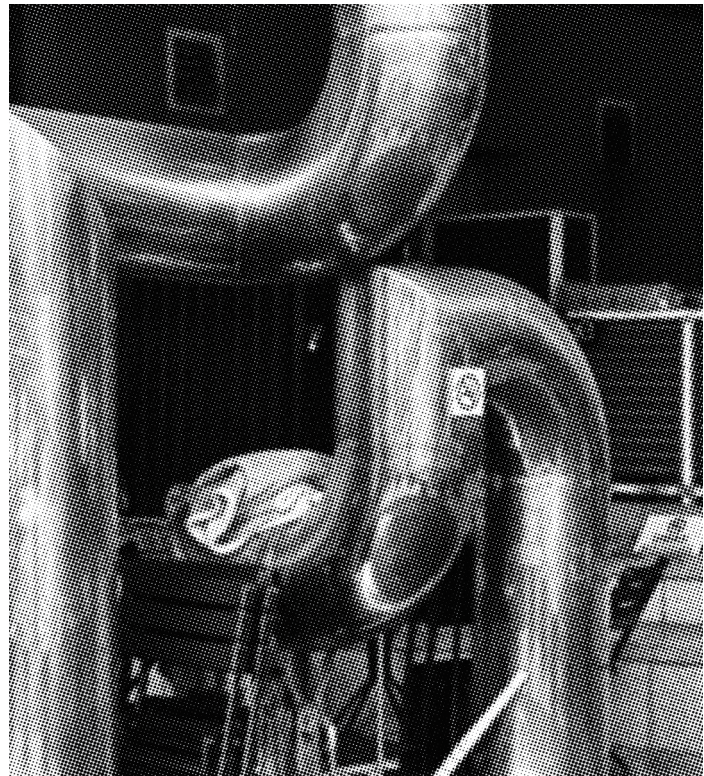


구나혜



9월 18일, 8개월간 조형물이 있는 외부 좌석을 정리해 온 ◁▷은 조형물이 겨울에 추운 이들을 위해 난로의 역할을 하는 ‘무엇’이거나 ‘배기관’인 줄 알았다고 했다.

조형물 위에 올려진 의문의 파란색 극세사 담요는 작년 겨울 추운 손님을 위해 카페에서 준비해 놓은 것이었지만 강아지가 오줌을 싼 이후부터 조형물 위에 있었다고 했다.





카페에 앉아 조형물을 관찰하는 내내 강아지에게 굉장히 친화적인 장면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내가 관찰을 시작하게 된 여름까지 그 자리 그대로 놓여있었다는 건 조금 너무하다.



인터뷰를 요청드리기 위해 이런저런 말과 함께 카페 창밖의 조형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것이 작품이다.’라는 말을 했을 때 ◁▷은 조금 놀란 표정으로 어색하게 웃었다.

조형물을 작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토록 신경 쓰지 않았다면 그럴 수 있겠다 싶었다. 의자를 기대두고 담요를 올려두고, 하지만 작품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도 크게 달랐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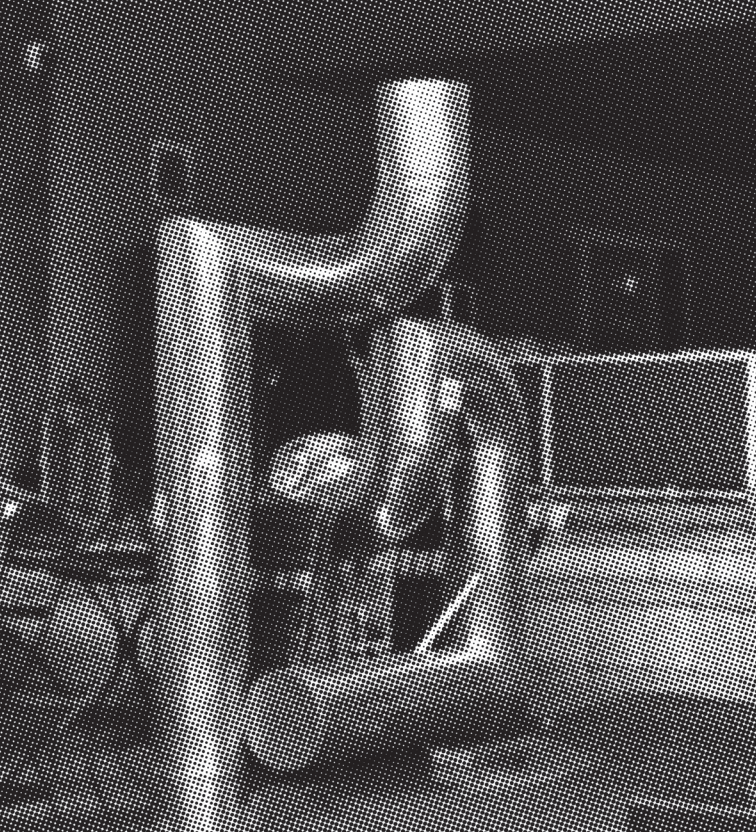


작품이 사물이 되는 것.

도시에 덩그러니 놓인 조형물이 표지판처럼, 벽처럼, 가로수처럼, 볼라드처럼, 보도블록처럼, 가로등처럼, 소화전처럼, 우편함처럼, 누군가의 대문처럼 변하고 내 방에 있는 아이패드 거치대처럼, 편지를 보관하는 신발박스처럼, 두꺼운 옷 사이에 끼여있는 옷걸이처럼, 먼지가 쌓여가는 세균맨 저금통처럼 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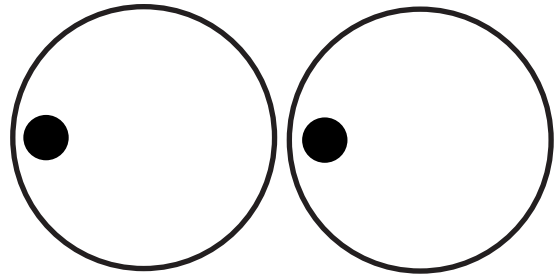
투명해진다.

내가 며칠간 관찰한 것은 투명해진 조형물인데 인어맨과 조개소년의 투명한 자동차처럼 그것은 단단하다. 많은 것이 그리고 시선이 그 주변에 기대고 있다.



FROM THE FORM (2003) _ 오세문
(포털에 작품명 오표기)

공공예술포털_FROM THE FROM



2025.07.24.

13:40 /카페 REON 도착

작업은 금속의 원통으로 제작되었다. 바닥에서 수직으로 곧게 올라오며 시작되는 원통은 곧고 짧은 직선으로 수평으로 일차 꺾임이 있다. 이후 수직으로 꺾였고 수평으로 향하다가 다시 직각으로, 다른 한 번은 다시 수직으로 하늘을 향하고 있다.

그 앞에는 같은 재질로 꺾이고 꺾여 옆의 바닥으로 내려가 바닥을 직선으로 딛

는 형태의 조형물이 있다. 두 개의 기둥은 서로 약간 닿아 있어 더 안전해 보인다.

조형물은 카페 외부 좌석의 원형의 공간 중앙에 놓여 있다. 원형의 공간은 열린 공간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담배꽂초를 버리지 마세요]

라는 표지판이 있다. 표지판을 보아하니 아마도 흡연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듯하다. 카페 주변에 놓인 작은 조명들은

밝은 낮부터 불을 밝히고 있다.
작은 불빛은 카페의 외관의 조경을 위해
놓인 것으로 보인다.

“카페 REON”

조형물에는 금연을 위한 아크릴 스티커
가 잘 보이는 위치에 붙어 있다.

카페의 창가로 봤을 때, 조형물의 위로는
겨울용 하늘색 극세사 담요가 놓여
있다. 안감은 양털처럼 복슬복슬한 짧은
털 원단으로 이뤄져 있는데 조형물 위에

오래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빨래가 시급해 보인다.

바로 옆에 세워진 빗자루는 조형물에 기
대어진 의자 사이에 끼워져 공중부양 중
이다. 의자 옆으로 더 작은 빗자루와 쓰
레받기가 기대듯 놓여있다.

조형물과 가까운 테이블 두 개는 어쩌면
외부 좌석인 것일까. 조형물은 투명한 벽
처럼 카페 외부 좌석을 안전하게 지켜주
는 듯 보인다. 또는 외부 자리에 앉은 이
들과 지나다니는 행인의 시선을 불편하

게 하며 불청객 마냥 자리잡고 있다.

마구잡이로 놓인 카페의 외부 의자는 조형물 자리를 계속 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거리 횡단보도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지만 조형물을 지켜보거나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다.

카페에 앉아 창가를 바라보며 조형물 관찰을 시작했다.

조형물 바로 옆에서 횡단보도를 보며 앉아있던 남녀는 담배를 피우고 있다.

13:42

지나가던 행인이 조형물 앞쪽 네모난 돌 위에 앉는다.

아주 더운 여름날이다.

돌의 상태를 손으로 한번 스치며 쓱 닦는다. 깨끗했는지 자신의 손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 앉는다. 그리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한 방향으로 걸어간다.

13:45

카페 건물에 드리워진 그늘 쪽으로 지나

가려던 아주머니의 품에 있던 강아지의 시선에는 조형물이 걸렸다.

13:46

바로 옆 도로를 지나가는 프레시 매니저는 카페에 앉아 조형물을 관찰하고 있는 나와는 눈이 마주쳤지만, 조형물에는 눈길을 주지 않고 지나친다.

13:50

선장의 모자 같은 느낌의 색 바랜 버건디 색의 모자를 착용한 중년 남자가 아주 느리지만 동일한 박자로 걸어간다.



조형물에는 시선을 두지 않고 남색 옷을 입은 회사원 두 명이 카페로 들어온다. 한 명은 남색 반팔 니트, 다른 한 명은 남색의 리넨 셔츠 차림이다.

세 명의 행인이 걸어간다. 조형물로부터 약 2.5m 떨어진 곳에서 잠시 다음 행선지를 논하는 듯 보이지만 조형물에 시선이 가는 사람은 없다.

파란 셔츠에 흰색 반바지를 입은 남자가 빠르게 지나갔다. 어디서부터 걸어온 것일까. 시야에 늦게 걸려 늦게 발견했다.

뒤에 앉아있던 남자와 여자 커플이 다시 같은 자리로 담배를 피우러 나간다. 조형물 바로 앞 대각선 위치에 앉은 여자분의 자리에서는 조형물이 잘 보인다. 둘은 대화를 나눈다.

남색 셔츠를 입은 회사원이 카페를 나가 조형물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 전화통화를 마친 듯 보인다.

남색 니트를 입은 회사원이 두 잔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테이크 아웃해서 카페를 나선다. 조형물 앞에 멈춰 전자담배를 꺼내 피운다. 테이크 아웃한 아메리카노를 조형물 바로 옆 테이블에 놓는다. 현재 카페에는 사람이 별로 없다.

13:55

카페 옆으로 걸어가는 행인 네 명, 둘둘 커플인 듯 보인다. 커플들 카페 바로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눈길이 잠시 카페로 향한 듯하다. 전자담배를 피우던 남색 셔츠 입은 남자가 카페

로 들어와 화장실 위치를 묻는다. 둘은 함께 화장실 쪽으로 향한다.

아주 느린 걸음으로 횡단보도로 걸어가는 이어폰을 낀 남자는 평퍼짐한 남색 8부 바지와 진한 회색의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다. 줄 이어폰을 끼고 있는 게 멀리서도 잘 보인다.

아무도 조형물에는 관심이 없다.
카페 앞에 앉을 수 있는 의자 열 자리
테이블 다섯 개
놀이 있는 의자 두 개

놀이 있는 테이블 하나

[담배꽂초 버리지 마세요]

표지판 세 개가 군데군데 놓여있다.

13:57

남색의 남자 손님 두 명이 화장실 방향으로부터 돌아온 참이다. 조형물 앞 테이블에 두고 갔던 커피 두 잔을 각각 들고 마신다. 흰색 모자에 금색안경을 쓴 여자가 밀고 있는 유모차에는 세 마리의 몰티즈가 타고 있다. 세 마리의 몰티즈

모두 혀를 길게 빼고 카페 쪽으로 고개를 향한다. 그 밖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14:00

잠시 카페에 들고 온 책에 한눈판 사이에 카페의 사장처럼 느껴지는 골프웨어를 입은 분이 들어와 있다. 그는 불독으로 판단되는 강아지와 함께 카페에 들어왔고 강아지는 카페 주방 안쪽까지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며 바닥에 놓인 물을 자연스럽게 마신다. 강아지가 힘이 세 보인다. 방금 들어온 남자는 밥을 먹

고 오겠다며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강아지를 부탁하고 떠났다. 강아지는 주인이 나간 밖을 하염없이 쳐다보며 카페 바닥에 엎드리듯 앉아 있다.



[그 사이에 눈으로 읽은 것들]

본가갈비, 족발자라는 집, 갈비명가, 미스터 망, 코코넛 스무디, 홍시주스 비타민C&면역력 강화, 토마토주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대박 나세요.

14:05

두 명이 카페에 들어온다. 파란색 캡모자를 착용한 남자와 흰색 캡 모자를 착용한 여자는 들어오면서부터 아이스아메리카노 두 잔을 시키기로 정하는 것을 포스기 바로 앞자리에서 들었다.

얼음 소리, 커피를 내리는 소리가 난다. 두 잔의 커피가 나온다.

모두 까져있는 발대.

창밖으로 지나가는 비둘기 한 마리.

카페를 나선 커플은 횡단보도 앞 그늘에서 초록불을 기다린다.

14:10

세 명의 행인이 모두 핸드폰을 보며 지나간다. 카페에 들어오는 두 명, 아이스아메리카노 두 잔을 주문하며 디카페인 커피가 가능한지 묻는다. 디카페인이 없다는 대답에 콜드브루를 주문한다.

뒤에 앉아 있던 커플이 카페를 나선다. 사장처럼 느껴지는 골프웨어를 입은 불독 주인 같은 남자는 그새 밥을 먹고 돌아왔다. 그는 다른 두 명의 아저씨를 이끌고 조금은 색다르게 메뉴 주문하고는 자리에 앉는다. 모두가 강아지에게 시골 벽적하게 인사를 한다.

14:20

지나가는 차와 사람들을 바라봤다.

14:24

두 명의 남자가 카페로 들어온다. 한 명은 검정 민소매에 검정 운동 반바지 차림이다. 다른 한 명은 밝은 회색 민소매에 밝은 회색 반바지 차림이다. 회색 민소매의 남자는 초록색 에어포스를 신고 있다. 다른 한 명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

조형물 앞에서 갈색의 종이봉투를 들고 한참 동안 통화를 하던 여자는 카페의 그늘을 이용 중이다. 아직 아무도 조형

물을 보지 않는다.

종이봉투를 들고 통화하던 여자가 일행과 함께 카페에 들어온다. ‘차가운 아메리카노’와 ‘차가운 카페라테’를 주문한다. 내 바로 뒷자리에 앉았다. 포스기 옆에서 냅킨 두 장을 가져간다.

검정 마스크에 검정 버킷햇 모자를 착용한 남자가 카페에 들어온다. 품에 안겨 있는 강아지가 귀엽다. 남자는 테이크아웃을 부탁한다.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가 조형물 앞에서 마스크를 벗더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방방 뛰는 강아지가 유난히 행복해 보인다. 남자는 갑자기 담배를 물고 조형물 앞으로 나선다. 보행로에서 담배를 태우기 시작한다. 커피랑 검은색 마스크가 조형물 앞 테이블에 놓인 상태이다.

곧이어 길거리를 지나가는 행인이 있다. 언젠가 TV에서 본 개그맨 같다.

지나가는 청반바지에 카키색 반팔 티셔츠의 사람이 있다. 사람들은 조형물보다 놀고 있는 강아지를 쳐다본다.

14:40

조형물 앞의 네모난 석조 의자에 흰색 양산을 쓴 여자가 앉는다. 흰색 바지 위로 얇은 재질의 갈색 반팔 티셔츠가 하늘하늘해 보인다. 흰색 양산의 끝이 동글동글하게 마감되어 있다.

갑자기 카페에는 7명의 손님이 자리하게 되었다.

바쁜 커피 머신 소리가 들린다.

2025년 08월 06일

18시 35분/ 카페 레온 도착

조형물에 기대어진 의자 다섯 개.

카페에서 조형물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한다면 조형물의 왼쪽에는 두 개의 의자가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 세 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조형물에 기대어져 있다. 카페 옆에는 조형물을 무시하듯 테이블 세 개가 놓여 있는데 그중 두 개는 동그란 상판을 마주 보며 적층 되어 있다. 조형물에는 여전히 올려져 있는 파란색의 담요

가 눈에 띈다. 지금 외부에서 사용 가능한 테이블은 세 개가 다다. 문 앞에 있는 테이블은 담배용으로 사용되는 듯 커피 찌꺼기가 담긴 플라스틱 컵 하나가 의자 없이 놓여 있다. 오늘은 카페 앞을 지나 다니는 사람들이 적을 것 같다. 퇴근시간과 겹친 시간에 몇몇 사람들은 사거리를 뛰어다닌다. 비가 와서 조형물 옆으로 얇은 물웅덩이가 생겼다.

18:42

통화를 하면서 지나가는 파란색 셔츠의 남자가 앞만 바라보며 걸어간다. 조형물

에는 여전히 눈길도 없다.

택배기사님인지 전단지를 붙이는 중인지 모르겠는 누군가가 카페의 입구 쪽을 카메라로 찍고는 빠르게 뒤돌아 걸어간다. 행인 2명이 지나가고 곧이어 3명이 지나간다.

문득 옆을 지나가는 사람보다는 조형물을 마주하듯 앞으로 걸어오는 사람들의 시선을 눈여겨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반대편에 위치한 [본가 갈비]로 들어가

는 이들도 조형물에 눈길을 주지 않는다. 고개를 들고 걷어가는(많은 이가 핸드폰을 하며 걷어가서 눈에 띄었다.) 라면 두 봉지를 사가는 흰색 셔츠의 행인은 나와 눈이 마주쳤지만 조형물에 눈길 없이 앞만 보며 걸어간다.

18:50

검은색 반팔에 회색 반바지 검은색 슬리퍼를 신은 키가 큰 남자의 손에는 검은색 비닐봉지가 들려있다. 남자는 손을 올려 약간 기침을 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그대로 앞으로 걸어간다.

짧은 다리의 닥스훈트와 함께 카페 앞을 지나가는 큰 에코백을 멘 여자의 포니테일이 멋지다.

어두운 푸른색 반팔 셔츠의 아저씨와 시야에 스치듯 걸린 다른 행인이 있다. 둘은 마치 지인인 듯 같이 걸어온다. 카페 앞에서부터는 각자의 방향으로 향해 반대로 걷기 시작한다. 어김없이 조형물에는 눈길을 주지 않는다.

흰색 봉투에 플라스틱 용기를 담아 가져가는 안경 쓴 남자가 지나간다. 퇴근하

는 듯한 여자는 황토색 모자를 쓰고 핸드폰으로 지도를 보듯 시선을 앞쪽에 고정시키고 걸어간다. 운동화에 양말을 신고 두리번거리며 걷던 남자는 운동하듯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걸어간다. 안경 쓴 여자 행인이 어디선가 자연스럽게 걸어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춘다.

모두들 바빠 보인다.

조형물 앞에 놓인 여섯 개의 네모난 석조 의자는 조형물과 함께 설치된 것일까 또는 아닐까.

흰색 반팔에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여자 행인을 보니 회사를 다니는 동생이 떠오른다. 퇴근하는 듯한 모습이다.

흰색 모자에 흰색 반팔 흰색 반바지를 입은 여자와 검은색 반팔에 검은색 반바지를 입은 여자가 횡단보도를 건너 카페로 들어온다. 들어오는 길에 심각한 대화를 하는 듯 표정이 사뭇진지하다. 조형물에는 눈길을 주지 않는다. 내가 앉은 테이블 바로 옆에 서서 주문을 한다. 주문을 하며 나와 가까이 서있었기 때문에 검은색 반팔에 검은색 반바지의 여자

가 나이키 운동화를 신었다는 사실과 흰색 반팔에 흰색 반바지를 입은 여자가 뉴발란스 운동화를 신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럴듯한 상상~

~길을 걷다 멈춰 서서 조형물을 보는 이가 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궁금해서 눈치를 보다 주먹으로 조형물을 살짝 쳐본다. 카페에 앉은 나는 충격을 받는다.~

18:55

카페에 들어온 검은색 반팔에 검은색 반

바지의 여자는 검은색 쪼리를 신고 있다.

두 명의 행인이 지나간다. 한 명은 카페의 왼쪽에서부터 걸어왔고 다른 한 명은 횡단보도를 건너며 걸어왔다. 둘 다 카페의 문쪽으로 시선이 옮겨갔지만 조형물에는 관심이 없다.

한 명이 조형물 앞에 서서 핸드폰을 한다. 정확히는 조형물에서 약 2m 앞으로 놓인 네모난 석조 의자 앞에 선다. 조형물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 순간이 있다.

횡단보도가 바뀌자 전자담배 한 모금을 내쉬더니 빠르게 횡단보도를 건너며 지나간다.

빙거지 모자를 쓰고 편한 카키색의 바지를 입은 남자는 노트북 가방을 메고 있다. 분홍색의 양산을 쓴 여자가 지나간다.



18:57

카페로 들어온 짧은 머리의 보라 반팔의 여자는 크로스로 멘 핸드백에서 빨간 동전지갑을 꺼내 계산한다.

양파망 같은 가방을 멘 여자가 구두를 신고 발이 아픈 듯 조금 불편하게 걷는다.

보라색 반팔티셔츠의 여자가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외부 자리로 쪽으로 나갔다. 내 자리에서는 외부 자리가 잘 보인다. 크로스로 메는 검은 가죽으로 만들어진 핸드백 가방에서 황토색의 종이봉

투를 꺼낸다.

종이봉투의 입구는 조금 너덜너덜한 채로 접착되는 부분 없이 단순하게 내용물의 네모난 모양에 맞춰 접히며 닫혀있다. 안에서 담배를 꺼낸다. 연초를 피우며 카페 쪽을 바라본다. 조형물 옆에 서서 창밖을 보고 있는 나를 완벽하게 응시한다.

그동안 두 명의 행인이 지나갔다.

밖에서 담배를 태우는 여자의 주문은 아

메리카노 테이크 아웃이었나 보다. 카페 직원은 담배를 태우는 여자에게 아메리카노를 전달해 준다. 구면인듯 아메리카노를 주고받는다.

조형물 앞 탁자 위에 테이크아웃 잔에 담긴 아메리카노, 컵 홀더의 색은 내가 좋아하는 노란색이다.



여자는 담배를 정말 우아하게 태우는 중이다.

19:02

여자는 종이봉투에서 담배를 하나 더 꺼낸다. 한대 더 태우기 시작한다. 여자가 담뱃불을 끄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아까 피우던 담배는 가장 가까운 커피찌꺼기가 담긴 투명 플라스틱 통에 꽂혀있다. 여자의 손톱은 젤네일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 빨간색 매니큐어가 조금 까진 듯이 발라져 있다. 여자가 고개를 들 때마다 눈이 마주친다.

여자의 시선을 피해 카페 내부로 시선을 돌렸다. 카페 직원은 토마토를 투명 플라스틱 통에서 꺼내 상한 것과 괜찮은 것을 구분하고 플라스틱 통을 분리수거하러 나간다.

19:05

보라색 반팔 티셔츠의 여자분과 아는 사이인 듯 카페 문 앞에서 둘은 잠시 대화를 나눈다.

세명의 사람이 지나간다. 한 명은 핸드폰을 한 명은 통화를 한 명은 전자담배

를 입에 물고 있다. 조형물 위에 올려져 있는 담요는 추운 날 덮기 위해서일까.

19:07

커플이 지나간다. 커플은 손을 잡고 있다. 노란 머리에 셔츠를 입은 사람이 지나간다.

19:21

엘시코기와 강아지가 그려진 반팔티셔츠를 입은 여자가 카페로 들어온다. 강아지는 파란색과 빨강 줄무늬가 있는 옷을 입고 목줄에는 ‘호두’라고 적혀있다.

카페 주방 바닥에는 노란색의 물그릇 하나
나자 작은 쿠션에 받쳐있다. 물그릇에서
물을 먹고 카페의 직원과 반가운 인사를
하다가 여자와 함께 밖으로 나간다. 여
자분은 외부 자리에 앉아 담배를 두 개
비 태운다.

19:25

중년의 커플이 들어왔다. 곱슬머리가 완
전히 새하얗게 머리가 흰 남자와 검은색
블라우스에 검은 안경을 쓴 여자는 내
뒤쪽에 있는 넓은 테이블을 이용한다.
곧이어 들어온 커플은 아까 보라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담배를 태우던 여자가 사
용하던 재떨이가 놓인 테이블에 앉았다.
남자는 전자담배를 피우고 여자는 핸드
폰을 한다. 핸드폰 화면이 약간 보인다.
장문의 문자를 보내고 있다.

옆에는 연두색 우산이 덩그러니 놓여있
다. 둘 다 조형물과는 무관하다. 조형물
은 카페에 있는 사람들을 외부와 분리시
켜 주는 가벽의 역할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이트를 홍보하는 작고 시끄러운 자동차

가 지나간다. 투에니원의 ‘fire’가 들린다.

‘호두’라는 이름의 강아지와 여자는 카페로 들어왔다.

19:30

곧 어두워질 것 같다. 여름은 해가 길다.

지나가는 남자 행인 두 명이 조형물 옆에 자리 잡고 앉은 커플을 바라보며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간다.

횡단보도를 건너며 걸어오는 여자는 고개를 약간 숙여 횡단보도를 보며 걸어온

다. 지나가는 커플 한쌍과 홀로 지나가는 사람 한 명.

검은색 반팔에 검은색 긴바지를 입은 남자는 몸을 정면을 향하면서 얼굴은 완전히 오른쪽으로 돌려 카페 쪽으로 향한다. 그의 눈을 따라가니 외부에 앉은 커플이 보인다. 혼자 지나간 줄 알았던 남자가 강아지를 안고 횡단보도 앞에 선다. 강아지를 내려놓자 강아지는 나무 냄새를 맡는 것처럼 밑동 쪽을 킁킁거린다. 둘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넌다. 외부에 앉아있던 커플이 들어온다.

딩그러니 놓여 있던 우산은 그대로 밖에 있다. 하늘색 가방을 메고 지나가는 파마를 한 여자는 정면만을 보고 걸어간다.

19:40

...

2025년 8월 10일, 오후 2시 47분
더운 여름/ 맑음

카페에 도착했다.

두 명의 손님이 외부에 앉아있다. 오늘은 외부에 있는 탁자와 의자가 모두 펼쳐져 있다. 외부에 있는 자리는 총 6 테이블에 각 두 자리 정도씩 놓여있다. 외부 테이블이 모두 펼쳐 있는 모습은 처음 본다.

2명의 남자는 조형물을 벽삼아 외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로 부터 떨어져 카페

를 지키듯 서있다. 먼저 오신 분들이 조형물이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 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창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앉았다.

카페 내부에는 두 명의 손님, 한 명의 카페 점원 그리고 손님 테이블에 함께 있는 강아지 한 마리이다.

사장 같은 남자가 카페로 들어온다. 그는 곧 수영을 간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 모두 아는 사람들일까. 그가 가는 수영장이 어디인지 궁금하다.

조형물을 바라보듯 고개를 돌리고 음료를 마시는 두 남자는 시선은 딱히 조형물은 아니지만 완벽히 조형물이 시선에 걸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 더운 여름에 왜 외부에 앉은 것일까 궁금하다.

오늘은 담요가 조금 더 밀려 내려온 것처럼 보인다.

주말에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일까.

카페에 앉아 있던 손님들은 모두 창을 등지고 앉아있다. 그들은 주방 쪽에서 일하는 분홍 모자의 카페 점원과 이야기를 나눈다.

강아지는 땅에 완전히 배를 깔고 눕는다.

14:55

노랑 모자를 쓴 하늘색 반팔을 입은 남자의 등에는 ‘Kodak’이라고 적혀있다.

헬멧과 편한 바지에 팔토시를 한 남자가 지쳐 보이는 상태로 카페에 들어온다.

횡단보도에서부터 보이던 흰 반팔티에 연한 청바지를 입은 긴 머리의 여자가 카페로 들어온다. 바로 내 뒷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백팩을 뒷 자리에 놓아두고 위쪽에 붙은 메뉴판을 보며 포스기 쪽으로 다가간다. 들어오면서부터 바라봤지만 조형물 쪽으로 시선이 가지는 않았다. 한참을 메뉴판을 본다.

강아지가 사람들의 발을 킁킁거린다.

한잔의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헬멧을 쓴 검은색 반팔티의 남자 앞에 놓인다.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벗고 화장실을 갔다가 돌아온 여자와 이야기를 나눈다.

밖에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지는 않는다. 카페 문에 있는 창으로 네모난 형태의 돌 옆에 놓인 커피 음료 캔 하나가 보인다.

할아버지가 급하게 뛰어간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였는지 초록불의 횡단보도로 뛰어들다시피 지나갔다.

카페 내부에 쌓여있는 종이 홀더들은 색

이 다양하다. 노란색, 버건디, 흰색 검은 색. 메뉴마다 달라지는 걸까.

아쉬운 점) 이 카페에는 맛있는 디저트가 없다. 도쿄브레드가 디저트로 있는 것 같은데 유리로 된 매대 안에 비닐포장까지 되어 있어 굳이 카페에서 사 먹고 싶지는 않다.

뒷자리에 앉은 여자에게 갈색의 무엇인가 우려져 나오는 티(tea)가 배달된다.



갑자기 여자는 점원에게 다가간다. 메뉴가 잘못된 것을 알리는 듯 보인다. 그리고 괜찮다며 다시 자리에 앉는다. 분홍모자의 점원은 미안해하면서 포스기를 열심히 살펴본다. 몇 백 원 정도의 동전을 되돌려 준다.

15:05

밀짚모자를 쓴 여자가 횡단보도에서 부터 카페 쪽으로 드리프트 하듯 자연스럽게 걸어온다. 보라색 에코백이 크다. 세명의 행인이 지나갔다. 한 명은 아이이다. 조형물에는 눈길도 가지 않았다.

검은색 반팔에 검은색 반바지 검은색 크로스백을 맨 여자가 지나갔다.

자전거를 탄 시원한 반발을 입은 남자가 지나간다.

비둘기 한 마리.

검은 민소매의 남자가 전화통화를 하며 지나간다.

08.18.(월)

19:00/ 비가 오는 날

비가 오는 날이다. 조형물 앞에 탁자 하나 놓여 있고 의자 여섯 개가 모두 조형물에 기대어져 있다. 그리고 빗자루와 쓰레받기도 여전히 기대어져 있다.

조형물과 가까운 곳에 두 개의 테이블이 상판을 마주 보며 놓여 있다. 다른 하나는 엮어진 상태로 놓여 테이블의 네 개의 철제 다리가 마치 안테나처럼 보인다. 파란색의 극세사 담요도 이전 상태

그대로 대충 접혀 놓여있다.

퇴근시간이지만 현재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는다. 카페 주변에 고깃집이 많다. (카페를 오기 위한 사거리에서부터 고기 냄새가 진하게 났다.)

카페 안에는 두 커플이 앉은 테이블 하나와 남녀가 마주 앉은 테이블 정도의 자리가 차있다.

카페 안으로 파란색 카라 반팔은 남자가 느리게 걸으며 들어온다. 황토색 반바지

에 사용감이 있는 흰색 에어포스를 신고 있다. 갑자기 안경을 벗고 핸드폰에 집중한다.

비가 오고 있다. 지나가는 검은 우산을 들고 있는 4-50대 중반처럼 보이는 남자는 남색 캡모자를 쓰고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 안경의 색까지는 구별이 가지 않는다. 그는 우산을 약간 앞쪽인 사선으로 기울이고 묵묵히 걸어간다.

두 커플이 앉은 테이블에서 (내 자리에서 고개를 돌려보았을 때)왼쪽에 앉은

여자 한 명이 가는 타이밍에 맞춰 일어나 마시고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테이크아웃 해달라고 부탁한다. 남녀가 앉은 테이블을 커플은 각자 자신의 음료를 들고 야외 테이블로 자리를 옮긴다. 남자가 담배를 꺼낸다. 골전도 이어폰을 귀에 꽂고 금테 안경을 머리 위로 걸쳐 썼다. 검은색 반팔의 여자는 연한 황토색 브리지가 잘 보이는 머리스타일이 멋지다.



검은색 우산을 쓴 두 여자가 발을 맞춰 걸어간다. 카페 쪽에서 보이는 한 명은 새가 잔뜩 그려진 에코백을 메고 있다. 검은 우산을 쓴 남자가 핸드폰을 보며 걸어간다. 우산을 등 쪽으로 기울여서 앞쪽의 시야가 완벽하게 확보되었지만 조형물을 보지는 않는다.

밖은 이미 어둑어둑하고 차들이 사거리를 옮겨 다닌다.
깜박이는 불빛들.
저 멀리 라페스타에는 작은 핑크색 조명이 꺼지고 켜지고를 반복한다.

19:40

검은 우산을 쓴 여자 두 명 한 명은 손선풍기를 쏘며 지나간다. 카페를 스치듯 지나가며 대화하는데 여념이 없다.

큰 남색 우산을 안경 낀 남자의 안경줄이 잘 보인다. 파란색 바지에 흰색 허리띠, 흰색 줄에 파란색의 에코백을 멘 남자가 바쁜 걸음으로 걸어간다.

두 커플이 모두 카페를 나간다. 밥을 먹고 왔는지 배가 부르다는 말을 얼핏 들었다.

검은색 우산에 검은 양복의 남자가 횡단 보도 앞에 선다. 앞만 보며 걸어가는 남자는 절대 조형물 쪽을 돌아보지 않는다. 횡단보도가 초록불로 바뀌었다.

19:45

엄청 큰 검은 우산을 여자가 지나간다. 박시한 스트라이프 셔츠가 짧은 반바지를 거의 가릴 수 있을 정도다. 핸드폰을 하면서 지나간다. 조금의 얼굴도 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우산을 들고 있다. 검은색 우산을 수직으로 들고 있는 남자는 7부 흰색 상의에 청바지를 입고 있

다. 남자는 약속이 있는 것처럼 아주 빠른 걸음으로 걸어간다.

도시락 가방을 들고 가는 회색 우산의 여자는 앞만 보고 걸어간다. 들고 있는 우산의 안쪽이 검은색이다. 우양산이다. 검은색 작은 우산을 쓴 남자는 안경을 한번 올렸다. 그는 신호를 기다리며 횡단보도에 서있다. 아이보리색의 통이 넓은 바지를 입고 있다.

카페에 나오는 노래가 계속 끊겨서 신경 쓰인다.

두 명의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카페 앞을 지나간다. 한 명은 검은색 캡 모자를 썼고 다른 한 명은 흰색 반바지를 입었다.

어두운 거리에 담뱃불이 유독 잘 보인다. 아주 둥근 초록 우산을 쓴 남자가 자기 몸만 한 검은색 가방을 메고 카페 앞을 지나간다. 슬리퍼에 흰색 양말을 신고 있다.

우비를 쓴 여자가 바쁜 듯 뛰어갔다. 저 멀리 걸어가는 초록 우산의 남자는 거북이 같다.

흰색우산을 걸어오면서 펼치는 중년 남

자는 파란색 카라가 있는 티셔츠에 황토색 반바지 입고 조금 특이한 운동화를 신고 있다. 들고 있는 흰색 비닐봉지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묵직해 보인다.

19:50

비가 오는 날 펼쳐진 차양덕에 조형물은 비를 맞지 않고 있다. 습한 날씨에 금속으로 만들어진 조형물은 약간의 습기가 느껴지지만 조형물에 빗방울의 흔적은 없다.

오늘은 카페 앞으로 외부 테이블이 많이 펼쳐있지 않아서인지 조형물 옆의 공간

이 다른 때보다 조금 넓어 보인다.

반대편에 서있는 흰색 반팔을 입은 남자는 검은 우산을 들고 횡단보도에서 카페 쪽을 바라보고 있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아주 큰 우산의 손잡이를 정확히 잡고 걸어간다. 종아리까지 오는 부츠도 검은색이다.

흰색 반팔을 입은 부부가 뛰어간다. 비가 와서 뛰어가는 듯하다. 부부의 자녀처럼 보이는 초록티셔츠의 아이는 자전거

를 타고 있다.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는 남자 두 명.
우산을 쓴 남자 두 명.

투명 우산을 남자와 여자는 모두 일행인 듯 보인다.

카페를 지나쳐 모퉁이의 술집으로 향한다. 카페를 돌아 우산을 접는 모습이 스치듯 보인다.

비가 온다.

전동킥보드를 타는 남자는 우산도 헬멧

도 없다.

지나가는 남자 옆으로 다른 행인이 눈에 들어온다. 그는 핸드폰을 보며 앞으로 걸어간다.

핑크 반팔을 입고 핑크색 우산을 쓴 남자와 양산 같은 작은 우산을 쓴 노란 카디건의 여자는 카페를 지나친다. 카페를 지나가는 내내 관찰했지만 조형물에 시선을 주지 않았다.

카페에 나오는 노래가 계속 끊긴다.

19:55

오늘 앉은 자리는 포스기 앞자리이다. 포스를 등지고 있어 카페의 전경을 볼 수 있다. “be brave” 가 적힌 포스터에 사자가 그려져 있다. 계속 끊기는 노래가 점점 신경에 거슬린다.

안경을 쓴 남자는 투명 우산을 들고 있다. 그는 내가 바라보는 방향과 반대편을 보며 걸어가는 중이다. 아까보다 빗방울이 굵어진다.

투명우산을 쓴 안경을 쓴 백인이 카페

쪽으로 걸어온다. 조형물을 바라보지는 않고 카페를 슬쩍 보며 걸어간다.

큰 우산을 두 명의 남자가 나눠 쓰고 있다. 카라티셔츠를 입은 청바지의 아저씨는 우산 없이 걸어간다.

빙거지 모자를 쓴 남자와 안경을 쓴 남자 둘은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다. 그들은 카페의 차양 안쪽으로 슬쩍 걸어와 담배를 피운다. 비를 피하기 위해 카페의 차양쪽으로 가깝게 다가왔지만 바로 앞의 조형물에 시선이 가지 않는다.

투명 우산을 쓴 여자와 약간 불투명 우산을 쓴 여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있다. 횡단보도를 건넌다.

작은 초록우산을 쓴 아저씨와 큰 초록우산을 쓴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20:00

카페 외부에 앉아 있던 여자는 잠깐 조형물 쪽을 바라본다. 다시 보니 조형물 앞에 서서 담배를 피우는 남자 두 명을 바라보는 것 같다. 여자는 앞에 앉아있는 남자의 말이 재미있는 듯 몸을 기울

이고 대화를 듣는다. 고리형으로 된 약간 큰 금색 귀걸이를 하고 있다. 가방에는 예쁜 모자를 쓴 인형 키링이 달려있다.

흰색의 불투명한 재질로 된 우산을 쓴 여자가 걸어간다. 관심만 있다면 시선이 조형물까지 이어질 수 있겠지만 핸드폰을 보며 걸어간다.

오늘 아침은 매우 덥고 맑은 하늘이었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게 신기하다.

접이식 초록 우산을 쓴 검은 반팔의 남

자가 걸어간다.

흰색 반팔, 흰색 반바지에 흰색 우산을 쓴 여자는 흰색 가방을 메고 지나간다.

후드를 입고 가방을 앞으로 멘 학생 같은 사람이 지나간다.

투명 우산을 쓴 파란색 반팔을 입은 여자는 핸드폰 케이스 줄에 손을 걸고 있다. 우산을 나눠 쓴 남자 두 명이 지나간다. 아무도 조형물을 보지는 않는다. 조형물은 투명한 벽 정도의 역할을 하는

듯하다. 또는 카페의 외부 좌석을 위해 필요한 거치대.

지나가는 여자는 물방울 무늬의 검은색 우산을 펼쳐 들고 선캡을 쓰고 있다.

아까 지나간 핑크색 우산의 남녀 커플이 걸어온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내 눈앞에서 한 번 더 지나간다.

4인 가족 구성원이 1인 1우산을 쓰고 지나간다.

20:06

검은색 큰 우산을 쓴 검은 반팔을 입은 남자가 핸드폰을 보며 지나간다.

카페 외부에 앉아있던 남녀 커플이 음료를 안쪽에 돌려주고 카페를 나간다.

카페 직원이 카페를 밖으로 나간다. 현재 카페 외부에는 두 개 정도의 투명 플라스틱 컵에 커피 찌꺼기가 담겨 있다. 컵은 외부 좌석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직원은 두 개의 컵의 커피 찌꺼기를 합쳐 하나의 통에 버렸다. 그리고 의자 하나를 접어서 조형물 사이에 기대어 두었

다. 또 다른 하나도 조형물에 기대어 둔다. 다른 의자도 모두 접고 테이블도 조형물에 기대두기 시작한다.

카페가 언제까지 여는 것인지 찾아봐야겠다.

23시.
넉넉하다.

20:12
통화를 하며 건너편 갈빗집에서부터 걸어오는 남자는 검은색 반팔에 검은색 반

바지를 입고 있다.

카페 앞의 건물의 벽을 왼손으로 한번 짚고, 카페 외부의 조형물 앞을 서성이며 통화를 계속한다. 잠시 조형물에 기대어 앉아 통화를 이어간다.

담배 피우기 시작한다.

20:15
두 커플이 조형물 앞에서 만나 금방 사라졌다. 두 명의 여자가 팔짱을 끼고 지나간다.

카페를 바라보는 남자가 지나간다. 우산을 쓴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지나간다. 카페에 들어온 남자는 우산을 카페 앞에 두고 음료를 주문한다.

20:20

두 명의 커플이 카페로 들어온다.

2025년 8월 23일 (토요일)

10:00 오전 / 날씨 맑음.

네이버에 카페를 10시에 오픈이라고 적혀 있지만 아직 열지 않았다.

근처에서 30분만 기다려 봐야겠다.

10:30

카페는 아직 오픈하지 않았다.

오늘은 조형물 옆에 조성된 돌 의자에 앉아서 잠시 관찰해 보기로 했다.

카페 근처는 밤에 장사를 시작하는 식당

이 많아서인지 오전 시간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흰색 스포츠 반팔을 입은 안경을 쓴 남자가 카페를 등지고 서있다.

[JJ REPUBLIC]

이라고 적힌 가게로 넘어가려고 한다.

“2벌에 59만 원”

주머니가 많은 메쉬소재 조끼를 입은 남자가 카페 앞을 지나친다. 바지를 치켜

올리며 걷는 중에 눈이 마주친다. 허리 띠가 눈에 걸린다.

자전거를 탄 바이커가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린다. 금방 출발한다. 초록불을 기다리는 동안 오로지 정면만을 바라본다.

흰색 스포츠 카라 반팔티를 입은 남자가 다시 카페 쪽 횡단보도를 건넌다. 벌써 볼일을 다 마친 걸까 아니면 길을 잃었을까. 왜인지 낙엽이 많다.

간장 치킨 색의 푸들이 포대기 같은 가

방에 쌓여 있다. 빨간 반팔의 여자에게 매달린 채로 지나갔다. 강아지가 조형물을 본 것일까?

해가 짹짹하다. 덥다.

10: 35

아직 카페가 오픈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외부 좌석이 모두 정리된 상태다. 모든 의자와 테이블이 조형물을 중심으로 모여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담배 한 갑은 어제 누

군가가 마지막으로 피운 담배일 것이라 유추해본다.

반대편에서 카페 쪽으로 걸오는 여자는 연두색 원피스에 흰색 스트랩이 예쁜 구두를 신었다. 진한 핑크색 가죽의 가방의 줄을 길게하여 크로스로 메고 있다. 줄 이어폰을 끼고 아이보리 색의 양산을 쓰고 걸어간다.

카페 쪽을 지나치는 유모차와 회색 모자를 쓴 여자가 지나간다. 유모차는 흰색 천으로 덮여 있어 아이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모두 조형물을 보지 않고 지나간다.

10:37

사거리 횡단보도의 신호는 초록불로 바뀌었지만 아무도 건너지 않는다.

10:40

검은 크로스백을 멘 남자는 흰색 반팔에 5부 청바지를 입고 있다. 매우 느린 걸음으로 카페를 지나치며 횡단보도를 건너간다. 조형물 쪽으로 눈길을 주지는 않는다. 스트라이프 반팔에 검은색의 째

은 쇼츠를 입은 여자와 아이보리색 모자를 쓴 검은 바지의 여자가 지나간다. 검은 긴 바지가 살랑거린다. 카페를 지나쳐 대각선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다.

아이보리색 반팔에 약간 푸른 끼가 도는 회색의 반바지를 입은 남자가 반대편에서 카페 쪽으로 횡단보도를 뛰어 건넌다. 더위 때문인지 찡그린 얼굴이다.

카페 맞은편에 카키색 모자에 검은 반팔의 남자가 신호를 기다리며 서있다.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다. 점점 가까이 오

더니 카페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넌다.

1:43

노란 모자를 쓴 행인이 조형물을 슬쩍 쳐다본다. 바로 옆에 있는 커플은 손을 잡고 있다. 연두색 쉬폰 원피스에 얇은 검은색 가디건을 입은 여자는 머리를 하나로 높이 묶고 있다.

남자는 반팔을 입고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다. 여자의 머리 위로 드는 햇빛을 가려주려는 듯 자신의 클러치 가방 들어 햇빛을 가려준다.

흰색 반팔에 검은 크로스백을 입은 남자가 카페를 지나친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있다.

10:45

회색 반팔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카페를 지나치며 나와 눈이 마주친다.

등에 땀이 너무 많이 난다.

곧 일어서야겠다.

매미 우는 소리.



이번 신호에서도 아무도 건너지 않았다.

10:50

장바구니용 푸른색 카트를 끌고 가는 여자가 횡단보도를 건넌다. 횡단보도의 중간부터 보게 되어서 어디서부터 건너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다.

아주 작은 검은색 백팩을 메고 양산을 쓰고 있다.

금방 오른쪽의 코너를 돌아 사라졌다.

1:55

카페가 드디어 열었다.

외부 의자와 테이블을 정리 중이다.

갑자기 8명의 인원이 동시에 횡단보도를 건넜다.

아무도 조형물은 보지 않는다.

카페 직원은 분주하다.

오늘은 관찰을 마친다.

2025년 8월 26일 _13:20

평일 오후 조형물을 보러 카페에 왔다.
여러 번 앉은 창가 자리에 앉아 조형물
을 관찰해 보기로 했다.

조형물에 기대어져 있는 의자 4개.
서로 마주 보고 엮어져 있는 탁자 두 개.
외부 테이블은 총 4개가 세팅되어 있다.

조형물 위에 놓인 담요를 다음번에 훑쳐
서 빨아오면 어떨까라는 귀찮은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서 지운다.

파란 셔츠를 입은 남자가 밖에서 연초를
태우며 한참 통화를 하고 들어왔다.

검은 반팔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횡단
보도 반대편에서 카페 쪽으로 걸어왔다.

홀터넥을 입고 포니테일을 한 여자는 선
글라스 끼고 있다. 얼굴로 들어오는 햇
빛을 작은 종이로 가리며 지나간다.

셔츠에 바지 허리띠의 남자가 무단횡단
을 한다. 초록색 시계를 차고 있다. 카페와
마주 보고 있는 [본가갈비]로 들어간다.

13:27

오늘은 해가 무척 짙다.

처서가 지났음에도 아직 기온이 덥고 가끔은 비도 내린다.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나는 날이다. 점심시간이 딱 지난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없다.

초록불로 바뀌고, 카페를 향해서 대각선으로 걸어오는 흰색 셔츠의 여자는 종이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커플이 카페로 들어온다. 여자는 딸기 요구르트 스무디를 시켰고, 남자는 캐모

마일 티를 시켰다.

안경을 쓴 남자가 커피를 마시며 카페를 지나친다. 조형물을 보지 않는다.

검은색 반팔을 입은 남자는 검은 시계를 차고 있다. 검은 운동화에 약간 네이비 빛이 도는 바지, 횡단보도에 잠시 서있다가 카페 쪽의 보행로를 걷는다.

양산을 쓴 짧은 파마머리의 여자는 아이보리 색 작은 토트백을 들고 있다. 보라색의 편해 보이는 반팔에 빈티지한 청바지를 입고 있다. 핸드폰을 보다 신호가

바뀐 것을 늦게 알아차린 듯 급히 걸어가기 시작한다.

네이비 색상의 모자를 쓴 안경을 쓴 여자가 앞을 보며 걸어갔다.

12:30

비둘기 두 마리가 조형물 주위를 맴돈다. 양산을 쓴 긴팔 셔츠의 여자의 핸드폰에 달린 큰 키링이 너무 잘 보인다.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있다.

짧은 앞머리에 뒷머리가 약간 긴 회색

반팔의 남자는 발목으로 갈수록 붙는 네이비 색의 체육복을 입고 있다. 그는 바닥을 두리번거리며 힘차게 걸어간다.

12:35

카페 앞은 손님 두 명 중 한 명은 핸드폰을 다른 한 명은 아이패드를 열심히 보고 있다. 작은 동영상 소리가 들린다.

투명 안경을 쓰고 흰색 블루투스 이어폰을 낀 행인이 지나간다. 약간의 파마끼가 있는 머리.

곧이어 3명의 행인이 지나간다. 모두 앞

만 보고 걸어가며 카페를 지나쳐간다.

13:06

꽃무늬가 그려진 검은 양산을 쓴 행인은 핑크색 에스닉한 무늬가 더해진 긴치마를 입고 있다. 따뜻한 회색의 카라티를 입고 카드 케이스가 있는 빨간 휴대폰 케이스가 보인다. 휴대폰을 본다.

휴대폰을 보느라 조금 늦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 계속 휴대폰만을 보며 카페 앞까지 걸어왔다. 안경을 한번 추켜올리고 한 곳에 서서 계속해서 핸드폰만 바라본다. 밖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

머리카락과 치마가 날린다. 잠시뒤 다시 돌아보니 사라졌다.

카페와 가게 여기저기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된 배너와 광고판이 널려있다.

초록불에 아무도 건너지 않았다. 올림머리를 한 카키색 나그랑 티셔츠의 여자는 연청색의 5부 반바지를 입고 있다. 빠르게 카페를 지나쳐간다.

두 명의 행인이 카페 조형물과 가까이서 카페 쪽을 지나쳐간다.

한 명의 행인이 나와 눈이 마주치며 카페를 지나쳐 갔다.

13:46

앞을 보며 카페 쪽을 지나치는 행인 1
반대편에서 카페 쪽으로 건너는 행인 1
카페를 지나쳐 횡단보도로 가는 행인 1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기다리는 행인 1과 눈이 마주쳤다.

초록색옷을 입고 지나가는 행인 1
운동복을 입고 지나치는 행인 1
카페에서 나와 길을 떠나는 행인 2
우양산을 쓰고 카페를 지나치는 행인 1

커플이 문 앞에서 방향을 틀었다.

13:50

검은 긴팔에 긴바지를 입고 횡단보도를 기다리는 행인은 조금 졸려 보인다.
아침에도 조형물 앞의 작은 조명등이 켜져 있다.

13: 53

본가 갈비에 들어간 초록색 스트랩을 한 디지털시계를 찬 남자가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갈빗집에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넜다.

살짝 눈이 마주쳤지만 상관없다는 듯 계속 이를 쏙이며 횡단보도를 건너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갔던 손님 중 1명이 다시 카페로 들어온다.

13:55

각기 다른 곳에서 걸어오는 행인 3명
리드미컬하게 걷는 행인 1명
반바지를 입고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카페를 지나친다.

14:00

두 명이 커플이 카페에 들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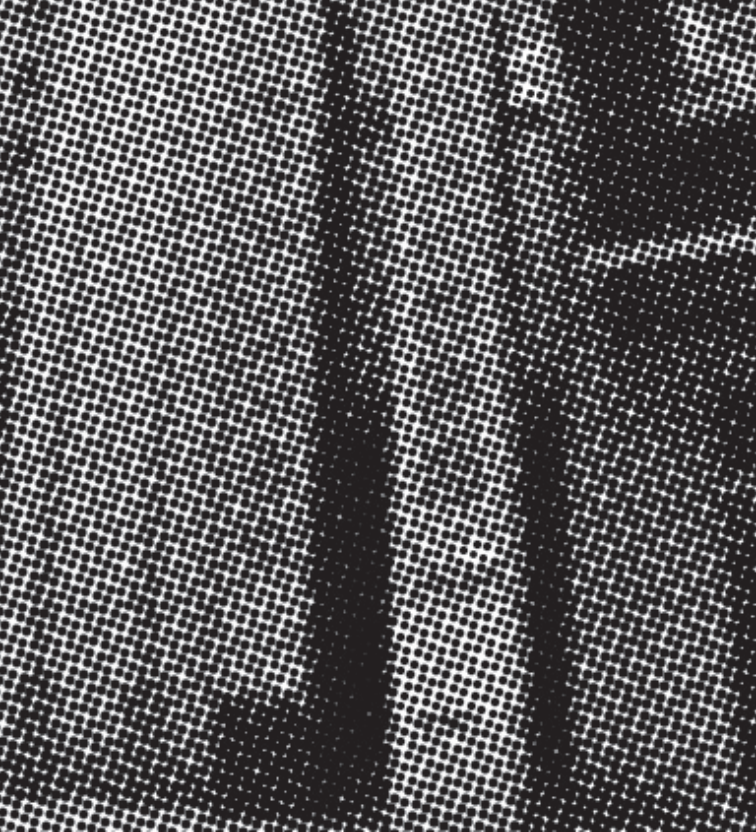
빨간불에 천천히 길을 건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보인다. 각각 지팡이와 양산을 들고 있다.

14:10

에스프레소는 잔에 마시고 따뜻한 아메리카노는 일회용에 받은 커플이 금방 마시고 자리를 일어난다.은색 가방을 멘 행인이 조형물을 살짝 본다.

14:15

카페는 강아지가 오면 물그릇을 바닥에 내어준다.



카페 앞의 조형물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라진 조형물이 있다. 조형물을 알게 된 건 ‘공공미술포털’을 통해서였다. 고양에 위치한 조형물을 웹을 통해서 구경하는 도중에 현수막이 딱하니 걸린 사진이 있는 조형물을 발견했다.

조형물을 완벽하게 가리며 현수막 두 개가 걸려있었다.

[현수막 실사출력] [낙지요리 전문점]

건물 2층 높이 정도의 긴 직사각형 형태의 석조 조각 두 개가 조형물이었다. 두 직사각형에는 위에서 아래로 길쭉한 현수막이 달려 있었고 조형물은 마치 현수막의 거치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듯 보였다.

현황 확인차 네이버 지도로 살펴보았고 2020년쯤부터 조형물이 사라졌음을 알게 되었다. 나에게는 당연히 흥미로운 점이였다.

건물의 □□ 과 간단한 대화를 하며 그 조형물이 없어진 배경을 들을 수 있었던 건 상상했던 이야기를 현실에서 하나의 물건으로 마주한 것처럼 정말 뜬금없고 단단했다.

건물주가 바뀔 무렵 건물의 앞으로 광고판을 설치하는 공사가 이뤄졌는데 그 과정에서 광고판을 설치하는 업체가 철거해 버렸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마음에 들었다.



□ 은 매우 호의적인 분이셨고 나의 여러 질문에 어떤 적대감도 없이 답해주셨다. 덧붙여 조형물이 철거되고 ‘잘했다’는 사람은 있어도 ‘왜 없어졌냐는 사람은 없었다’는 말도 너그러운 목소리로 해주셨다.

Q. 그림나던 건물의 조형물을 관리하는 곳이 있다면 어떤 이유일까요?

A. 건물 관리 소장님이 그런 ‘퀴디’가 있다면 슬고 닉고 관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없으실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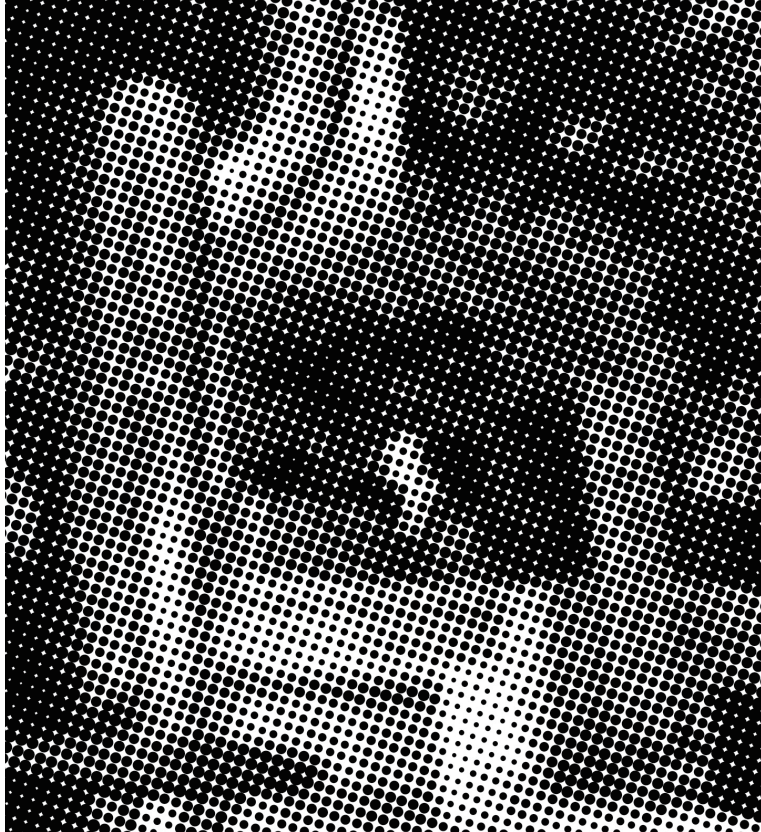
이후에 경기도를 굴러다니다가 건물을 건축하며 ‘건축물 미술작품’을 함께 설치해 본 건축사의 ○ 를 만나게 되었다. 건축사무소에서 어떤 작가에게 연락을 하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얼마의 이익이 발생하는지를 들으며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비즈니스로 다가왔다. 여러 어른의 밥줄.

○는 이 제도가 투명해지거나 모두 공모 형식으로 발전하면 어떨까 라는 의견을 내놓았고 더불어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나에게 모든 시도들이 만드는 멋진 틈을 상상하게 해주었다. 많은 오답노트.

여러 번의 일정 조정 끝에 큐레이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과 대화를 나누었다. 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 대해서는 강한 의견을 갖고 있었다. 더불어 제도로 설치 및 제작된 작품이 작품적으로 관객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의미가 부족하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더불어 공공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은 조형물을 직접 촬영하고 업로드 한다고 했다. 그동안 봐왔던 이미지들의 주인을 찾았다. 약 600개의 조형물 중 1년에 30-40개를 점검하는 1명의 사람이 있었다. 가장 직접적인 이야기를 꺼낼 수 있지만 밀어붙일 수는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나의 작업이 비평으로 빠지는 것을 걱정하며 한아름 들고 온 '조례'들은 종이를 무겁고 뻑뻑하게 채우고 있었고 큰 조형물 만큼이나 무거운 문서들이 뒤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기획·제작 : 구나혜_rngp222@gmail.com

인터뷰 : 카페 직원

건물 관리소장

건축가

큐레이터학과 교수

문화예술과 주무관

해움 새들

이 책자는 '고양시 예술창작공간 해움·새들 입주작가 프로젝트'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25년 경기도 고양시 정발산역 인근의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로 설치 및 제작된 작품을 리서치했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취지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하여 도시에서 새로운 기능을 찾은 조형물 하나를 근방에서 관찰해 보았고 도시에 덩그러니 놓인 조형물은 점점 투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